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4년 9월 6일(금)

하나님! 금요일 이른아침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른아침에 주신 『진실된 사과와 진정한 용서(마6:14~15)』라는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답게 사는 삶은 진실된 사과와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사는 것임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는 삶의 중요성과 의무감을 마음에 더욱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직접 비유로 인용해 주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마18:21~35)”처럼, 우리가 20만년(만 달란트)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단번에 전부를 탕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준행하며 오늘도 진실된 사과와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을부흥사경회(9/10~12)를 통해, 새문안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흥강사이신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새문안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사경회 주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더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생명 기쁨나눔주일(10/20 · 10/27)을 맞이하여 1명 이상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당일 초청된 귀빈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오직 예수! 더욱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 (1)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 (2)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 (3)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 (4)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308장 - 내 평생 살아온 길

- (1)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 보오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 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 길 주님 바라 뵙니다
- (2)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 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의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 (3)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기도 담당

9/2(월)	9/3(화)	9/4(수)	9/5(목)	9/6(금)	9/7(토)
강성균 안수집사	정재환 재적안수집사	이승균 안수집사	김창동 안수집사	김춘식 안수집사	이호준5 재적안수집사

2024년 9월 6일(금)

이른아침예배

인도 : 윤지옥 목사

예배를 여는 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187장	다	함	께
기 도	김춘식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6장 14~15절	인	도	자
찬 양 내 주를 가까이	새	벽	찬 양 대
설 교 진실된 사과와 진정한 용서	윤지옥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함	께
찬 송 308장	다	함	께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 마6:14~15 >

1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 참고의 말씀 < 마6:12 / 마18:35 / 마18:33 / 마5:7 >

□ 마6:12 [주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 마18: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 마18: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 마5:7 [팔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